정신문화연구 2008 봄호 제31권 제1호(통권 110호) pp. 301~326.

研究論文

천군계 작품의 사적(史的) 고찰

강 혜 규*

Ⅰ. 서론
Ⅱ. 초기 천군계 작품: 14세기 후반~15세기
Ⅲ. 중기 천군계 작품: 16세기~17세기 초반
Ⅳ. 후기 천군계 작품: 17세기 중반~19세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서론

본고의 "천군계 작품"이라는 개념은, 마음의 의인화인 천군(天君)이 등장하는 서사산문 가운데 마음의 수양과정을 주제로 한 작품군을 가리킨다. 동아시아 가운데 고려와 조선에서만 이 작품군의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조선후기 천군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의인체 소설인 천군소설(天君小說)의 창작으로 이어졌다.[1] 이러한 천군소설의 형성배경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가전(假傳) 장르의 영향 및 16세기 조선 성리학의 심성론(心性論)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적하였다.[2]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천군계 작품의 사적(史的) 맥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4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천군계 작품을 검토해 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천군계 작품이 질적·양적으로 큰 변화를 보

*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고전문학 전공(wyeyang@naver.com).

1) 金光淳, 『天君小說硏究』(螢雪出版社, 1980), 9~11쪽의 천군과 천군소설의 개념 참조.

2) 위의 책, 12~40쪽.

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초기·중기·후기 천군계 작품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까지의 천군계 작품을 '초기 천군계 작품'으로,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에 창작된 작품을 '중기 천군계 작품'으로,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에 창작된 작품을 '후기 천군계 작품'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초기와 중기, 후기 천군계 작품은 시기별로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각 시기별로 천군계 작품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당대 사대부들이 이러한 작품들을 어떤 목적으로 창작하고 향유하였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려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천군계 작품의 전개를 파악하는 한편, 조선의 성리학이 문학 및 역사와 결합되는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초기 천군계 작품: 14세기 후반~15세기

지금까지 확인되는 작품 중 최초의 천군계 작품은 1375년(고려 우왕1), 정도전(鄭道傳, 1342~1398)에 의해 창작된 「심문」(心問)·「천답」(天答)이다. 다음은 「심문」의 한 대목이다.

> 신하인 제가 상제의 명령을 받아 사람의 신령(神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귀와 눈이 있어 빛을 보고자 하고 소리를 듣고자 하며,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말하고 침묵하고, 손으로 잡고 발로 걷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저의 병통을 만들어, 날마다 저와 더불어 다툽니다. 지(志)는 나의 장수요, 기(氣)는 나의 사졸인데도, 모두 굳게 지키지 못하여 나를 버리고 적을 따르니, 저의 미약함으로 인해 고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誠)과 경(敬)으로 갑옷을 삼고 의(義)와 용(勇)으로 창을 삼아 사명(辭命)을 받들어 그들의 죄를 성토하여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항복시킵니다. 저에게 순종하는 자는 선하고 저를 배반하는 자는 악하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따르고, 어리석고 불초한 자는 거역하는데, 패(敗)함을 인하여 공(功)을 이루고 거의 잃은 뒤에 얻게 되었습니다.[3]

3) "臣受帝命, 爲人之靈. 人有耳目, 欲色欲聲, 動靜語默, 手執足行. 凡所以爲臣之病者, 日與臣爭. 志吾之帥, 氣吾徒卒, 皆不堅守, 棄臣從敵. 以臣之微, 孤立單薄. 誠敬爲甲胄, 義勇爲矛戟, 奉辭執言, 且戰且服. 順我者善, 背我者惡; 賢智者從, 愚不肖逆. 因敗成功, 幾失後獲"(鄭道傳, 「心聞」, 『三峯集』 卷之十).

「심문」·「천답」은 마음과 하늘의 대화로 구성된다. 마음은 상제(하늘)의 신하로 명을 받아 사람의 신령이 되었지만, 이목(耳目)으로 인해 날마다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에 마음은 적에 맞서 지(志)를 장수로, 기(氣)를 사졸로 삼지만, 결국 홀로 고립되기에 이른다. 마음은 상제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하늘의 보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상제는 마음에게 타고난 본성을 지키며 하늘의 정한 때를 기다릴 것을 명한다.

권근(權近, 1352~1409)은 1394년(태조1년) 정도전의 「심문」·「천답」에 주석을 붙이고 서문을 썼다. 권근은 이 주석에서 마음이 천군이 되어 물욕(物慾)을 제어하는 것이 임금이 적을 방어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4] 또 권근의 서문에는 정도전이 「심문」·「천답」을 창작한 동기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선생(정도전—인용자 주)이 또 일찍이 「심문」·「천답」 2편(篇)을 지어 하늘이 사람의 선악을 보응하는 더디고 빠른 이치를 밝혀 사람에게 바른 도리를 지킬 것을 권면하였다. 그 말이 지극히 정밀하고 절실하여 공리(功利)에 골몰한 자가 볼 것 같으면 유혹을 제거하여 자기 병에 약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또 훈석을 가하여 이 편 끝에 붙인다. 대저 이단(異端)을 물리친 후에 우리의 도(道)를 밝힐 수 있으며, 공리(功利)를 버린 뒤에 우리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생의 작품이 세교(世敎)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자, 내(권근—인용자 주)가 오늘 편차(編次)하는 뜻이니, 이 글을 보는 자는 소홀함이 없기 바란다.[5]

권근은 「심문」·「천답」이 이단을 물리치고 세교를 바로잡는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한다. 즉 이 작품은 심성론의 논리를 펼쳐 도교와 불교에 대항하는 동시에 유학을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창작된 것이다.[6] 유불갈등의 핵심적 쟁점은 심

---

4) "心爲天君, 以志統氣而制物欲, 猶人君之命將帥, 以率徒衆而禦敵人也. 故曰'志吾之帥, 氣吾徒卒.' 然志苟不定, 則物欲得以奪之, 而理不能以勝私矣. 故其志之爲帥與其氣之爲徒卒者, 皆不能堅守其正, 反棄吾心而從物欲. 故吾之此心, 雖曰一身之主, 卒至孤立單弱而薄劣也"(權近, 「心聞註」, 『三峯集』 卷之十).

5) "先生又嘗作「心問」·「天答」二篇, 發明天人善惡報應遲速之理, 而勉人以守正. 其言極爲精切, 使怵於功利者觀之, 可以祛其惑而藥其病矣, 故又加訓釋以附三篇之後. 夫闢異端然後可以明吾道, 去功利然後可以行吾道, 此先生之作所以關於世敎爲甚重, 而吾今日編次之意也. 觀者幸毋忽"(權近, 「心聞天答序」, 『三峯集』 卷之十).

(心) 개념이었던 바, 주자(朱子)는 심성(心性)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불교를 비판하며 유교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7] 정도전의 「심문」·「천답」은 주자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유교의 심(心) 개념을 궁구하여, 도교와 불교를 비판하고 성리학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약호부」(藥壺賦)[8]라는 작품을 보자.[9] 이 작품에는 선비와 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선비가 노인을 만나 도가의 방술로 오래 살 방도를 묻자, 노인이 "오직 마음에서 구하여라, 이것이 도의 참이니라" (唯求之心, 乃是道眞)는 말로 그를 깨우친다. 선비는 이에 깨달아 "내 장차 이 비결로 천군에게 주려하네"(吾將乎此訣, 以遺兮天君)라고 대답한다. 이 작품은 유가의 입장에서 도가의 논리와 방술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10]

고려 말부터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성리학이 연구되었는데, 이들은 성리학의 심성 개념에 천착하여 당시 흥성하던 도교·불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도교와 불교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천군계 작품은 신진사대부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산생되었다. 곧이어 신진사대부들은 왕조교체의 주역이 되었고, 혁명을 거쳐 세워진 조선왕조는 고려 왕조의 불교적 신앙과 문화기반을 유교이념에 기반을 둔 사회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부터 주목한 유불의 핵심개념인 심(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초기 천군계 작품은 신진사대부들의 심성에 대한 관심과 결부되어 창작·향유되기 시작하였다.[11]

---

6) 또 권근은 위의 대목 앞에 정도전의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辨老佛邪遁之害, 以開百世聾瞽之學, 折時俗功利之說, 以歸夫道誼之正"(權近, 앞의 글).

7) 금장태, 「조선초기 儒佛논쟁과 心 개념」, 『한국유학의 心說』(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8~21쪽 참조.

8) 南孝溫, 『秋江集』(1), 「藥壺賦」.

9) 「약호부」(藥壺賦)는 부(賦)의 형식을 띠고 있다. 부(賦)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문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의 수양방법을 찾는 서사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천군계 작품에 포함된다.

10) 한편, 남효온은 이 작품 외에 「수향기」(睡鄕記)라는 작품에서 천군을 등장시켜 스스로 발화하는 인물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향기」는 마음의 수양과정을 성찰한다기보다는 잠에 의해 시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천군계 작품과는 별도로 논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임제(林悌, 1549~1587)의 「수성지」(愁城誌)도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1) 이와 함께 고려시대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가전(假傳) 및 몽유록 등의 의인체 문학전통이 천군계 작품의 산생에 직접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金光

III. 중기 천군계 작품: 16세기~17세기 초반

중기 천군계 작품은 초기 천군계 작품에 비해 서술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문체로 창작되었다. 또 등장인물의 수가 증가하고 인물의 성격이 구체화되며 배경묘사가 자세해지는 등 서사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기 천군계 작품은 수적으로 많은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이러한 양상이 일어난 원인을 단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그 중에서도 이들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심경부주』와 중기 천군계 작품의 관계를 살펴본 뒤 중기 천군계 작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심경부주』(心經附註)와 중기 천군계 작품의 관계

『심경부주』(心經附註)는 명대(明代) 성리학자 정민정(程敏政, 1445~1499)이 『심경』(心經)에 관련학설을 보완하고 주를 단 것으로, 1492년 간행되었다. 1519년 이전에 조선에서 『심경부주』가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심경부주』가 조선에 들어온 것은 16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16세기 이래 조선 사대부들은 『심경부주』를 조선 성리학의 기본서로 인식하였다.[12] 그런데 이 『심경부주』에 '천군' 개념의 역사가 서술되고 있으며, 천군계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과 주요장소 및 천군계 작품의 기본 구조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음미를 요한다.

우선 『심경부주』에 서술되어 있는 '천군' 개념사에 대해 살펴보자. 마음을 의인화하여 '천군'이라 한 것은 『순자』(荀子)에서 연원한다. 『심경부주』에서는 순자가 천군에 대해 서술한 대목[13] 및 송대(宋代) 범준(范浚)의 「심잠」(心箴)에서 천군이 등장하는 대목[14]이 나오고 있다.[15] 또 『심경부주』에는 신안 예씨(新安倪氏)가 순

淳, 앞의 책, 25~40쪽 참조.

12) 김종석, 「『심경강해』를 읽기 전에」, 김종석(역주), 『퇴계선생의 심경부주 강의: 심경강해』(이문출판사, 1999), 5~7쪽.

13) 『心經附註』(3), 「鈞是人也章」, "荀子曰: '耳目口鼻能各有接而不相能也, 夫是之謂天官.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心者形之君也, 而神明之主也, 出令而無所受令.'"

14) 『心經附註』(4), 「心箴」, "范氏「心箴」曰: '…心爲形役, 乃獸乃禽. 惟口耳目, 手足動靜, 投間抵隙, 爲厥心病. 一心之微, 衆欲攻之, 其與存者, 嗚呼幾希.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

15) 金光淳, 앞의 책, 10쪽 참조.

자와 범준이 사용한 천군 개념을 인용한 대목이 보인다.[16] 더불어 『심경부주』에는 『심경』의 편자(編者) 진덕수(眞德秀)가 "내가 천군을 섬긴다"라고 한 대목이 나오고 있다.[17] 이처럼 『심경부주』에는 천군 개념의 연원과 천군 개념을 사용한 학자들 및 그 학설이 소개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조선 사대부들은 『심경부주』의 독서를 통해 천군 개념에 익숙해질 수 있었을 것이며, '천군'에 대한 사고를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심경부주』에는 천군과 관련된 개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중기 천군계 작품의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심경부주』에서는 '심'(心)을 '주인옹'(主人翁)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경'(敬)을 '주일'(主一)·'성성'(惺惺)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을 보자.

> 또한 승려인 단암(瑞巖)이 매양 아침저녁으로 항상 '주인옹은 깨어있는가[惺惺]?'라고 스스로 묻고는, '깨어있다'[惺惺]라고 스스로 답하곤 하였다.[18]

> 경(敬)은 단지 하나를 주장하는 것[主一]이다. 하나를 주장[主一]하면 이미 동쪽으로도 가지 않고 또 서쪽으로도 가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하면 다만 중(中)이오, 이미 여기로도 가지 않고 또 저기로도 가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하면 다만 안[內]이다. 이를 보존하면 천리가 자연히 밝아진다.[19]

이처럼 마음이 '주인옹'으로 의인화된 대목과 경(敬)이 다양한 용어로 해설된 대목들은 중기 천군계 작품에서 '경'(敬)의 의인화인 '주인옹'(主人翁)·'무극옹'(無極翁)·'성성옹'(惺惺翁) 등이 출현하게 된 것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여

16) 『心經附註』(3), 「鈞是人也章」, "新安倪氏曰: '先師云, 荀卿以耳目爲天官, 心爲大君. 又曰: 心者, 形之君也. 出令而無所受令, 卽此語以看孟子此章甚切, 能先立乎其大者, 則此心卓然, 能爲耳目之君而從其大體, 所謂'天君泰然, 百體從令'者也. 不能先立乎其大者, 則退然方聽命於耳目而從其小體, 所謂心爲形役者也."

17) 『心經附註』, 「心經贊」, "我來作州, 茅塞是懼, 爰輯格言, 以滌昏腑, 明窓棐几, 淸晝罏薰, 開卷肅然, 事我天君."

18) 『心經附註』(1), 「敬以直內章」, "又因言瑞巖僧每日問: '常自問主人翁惺惺否否?' 自答曰: '惺惺.'"

19) 『心經附註』(1), 「易乾九二閑邪存誠章」, "敬只是主一, 主一則旣不之東, 又不之西, 如此則只是中; 旣不之此, 又不之彼, 如此則只是內. 存此則天理自然明."

겨진다.[20] 또 『심경부주』에 나오는 '경'(敬)·'성의'(誠意)·'이욕'(利慾) 등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개념을 의인화할 경우 인물의 성격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경'(敬)이 일심(一心)의 주재(主宰)이자 성성법(惺惺法)이다'라는 『심경부주』의 대목을 토대로, 천군계 작품의 작가들은 주인옹이 재상의 직분을 지니고 성성옹을 초빙한다는 발상을 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기 천군계 작품 속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성의관'(誠意關)·'신명사'(神明舍)가 『심경부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성의는 인(人)·귀(鬼)의 관문이니, 이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여야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21]

> 마음은 신명(神明)의 집이니, 텅 비고 신령하며 밝게 통하여 온갖 이치를 갖추고 만물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목구비(耳目口鼻)의 욕망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사사로움이 모두 내 마음의 허물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물욕(物慾)에 얽매임을 당하면 달려가고 흘러넘쳐 올바른 이치를 잃게 되고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22]

예문에서는 성의(誠意)가 관문으로 실체화되고 있으며, 마음이 신명(神明)의 집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또한 관문을 통과하고 집을 지켜야 한다는 설정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목들은 중기 천군계 작품의 기본 배경으로 성의관·신명사가 등장하고, 성의관을 통과하고 신명사를 지켜야 한다는 서사구조가 나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23] 이와 함께, 『심경부주』에는 다음과 같이 사물기(四勿旗)의 모티브가 나오고 있다.

---

20) 이와 관련하여 주자가 「감흥」(感興)이라는 시에서 "珍重無極翁, 爲我重指掌"이라 하여, 무극(無極)에 대한 학설을 펼친 주렴계(周濂溪)를 '무극옹'이라 칭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21) 『心經附註』(2), 「大學誠意章」, "誠意是人鬼關. 過此一關, 方會進."

22) 『心經附註』(4), 「求放心齋銘」, "心者神明之舍, 虛靈洞徹, 具衆理而應萬物者也. 然耳目口鼻之欲, 喜怒哀樂之私, 皆足以爲吾心之累也. 此心一爲物欲所累, 則雚逸流蕩, 失其至理而無所不至矣."

23) 이외에도 『心經附註』에는 '경재'(敬齋), '삼외재'(三畏齋) 등의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후기 천군계 작품인 황중윤의 『천군기』(天君紀)에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

> 『설문해자』에 '물(勿)자는 깃발의 갈기와 같다'고 하였다. 이 깃발을 한번 저으면 삼군(三軍)이 모두 후퇴하니, 공부가 다만 물(勿)자 위에 있다.[24]

중기 천군계 작품에 사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 대목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사대부들은 『심경부주』를 통해 천군이 성의관 안에 있는 신명사에 자리를 잡고 주일옹과 성성옹을 보좌로 삼고 있는 모습과, 성의관의 관문에 사물기가 펄럭이는 형상을 그려보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군계 작품의 기본구조와 관련된 대목이 『심경부주』에 보이고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군계 작품의 구조는, 천군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회복한 나라를 잘 지켜 적이 다시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경부주』에는 마음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는 대목이 보이고 있다.[25] 이러한 『심경부주』의 대목은 천군계 작품에 인용되어 주인옹의 간언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천군계 작품의 등장인물과 배경 및 기본구조와 관련된 대목이 『심경부주』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기 천군계 작품이 활발하게 창작·향유된 현상과 조선 사대부들이 『심경부주』를 중시한 상황이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대부들이 『심경부주』를 중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사대부들은 왜 『심경부주』의 천군 및 그 관련 개념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왜 상실과 회복이라는 구조에 주목하였을까?

조선에서 『심경부주』를 읽었다는 기록은 중종 대 기묘명현(己卯名賢)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26] 기묘명현은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화를 입은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비롯한 유학자들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쓴 『심경부주』의 발문을 보면, 중국학자들은 『심경부주』를 중시하지 않았는데 유독 조광조와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책을 애호하였고, 특히 기묘사화 이후로는 이 책의 중요성이 주자의 『근사록』에 비견할 만큼 높아지게 되었다고 한다.[27] 이를 볼 때, 기묘사화와 조선 유학자들의 『심경부주』에 대한

---

24) 『心經附註』(1), 「顔必問仁章」, "『說文』謂勿字似旗脚, 此旗一麾, 三軍盡退, 工夫只在勿字上."

25) 『心經附註』(1), 「復初九不遠復章」, "失而後有復, 不失則何復之有. 惟失之不遠而復, 則不至於悔, 大善而吉也."

26) 김종석, 앞의 글, 6쪽.

주목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여겨진다.

왕조교체 이래 조선의 사대부들은 15세기 중반의 세조의 왕위찬탈, 15세기 후반부터 연속된 사화(士禍) 등의 정치적 사건을 수차례 겪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유학자들은 당대의 현실을 유교사회의 이상을 펼치기 어려운 시공간, 즉 도(道)가 상실된 공간으로 파악하였다.[28] 이들은 상실된 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 위정자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인식하였다. 이에 유학자들은 욕망에 의해 상실된 본심을 회복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심성론을 연구하며 본심 회복의 방법을 찾고자 분투하였다.[29] 『심경부주』의 중시는 이러한 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함께 천군계 작품을 창작한 유학자들이 천군이라는 개념을 실제 임금처럼 성격화하고 마음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구조에 주목한 것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된다.

또한 『심경부주』의 무수한 논란처와 난해처로 인해, 조선에서 수많은 『심경』 주석서가 나온 현상도 짚어져야 한다. 이 책은 수많은 학자들의 심(心)에 대한 학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학설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심경부주』에 나오는 송대(宋代) 학자들의 학설은 어록체(語錄體)로 이루어져 있거나 방언(方言)이 섞여있는 등 해석이 어려운 대목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대부들은 『심경부주』를 대상으로 토론과 연구를 거듭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천군계 작품의 작자층과 향유층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경부주』에 등장하는 도상(圖像)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

27) "『附註』作於弘治壬子, 距正德己卯間閱二紀, 訖未聞爲中國學者所重, 而獨我靜菴先生一時諸賢, 亟讀而好之, 仍得表出鋟梓, 盛行於東方. 不幸施遭神武之禍, 於時繇先生以及晦齋, 退溪,南冥諸賢, 輒各抱持是書, 退隱於山海之間, 誦習紬繹, 以成其學, 稱引傳授, 殆與『近思錄』班"(朴世采, 「跋聽松先生心經」, 『南溪集』 卷68).

28) 조선전기에 이르러 도교와 불교가 성리학에 밀려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유학자들은 조선사회가 유교사회로 확고히 정립되기 위해 아직 해결되어야 할 사회의 내부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초기 천군계 작품이 유교사회의 성립을 위해 도교와 불교를 배척하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창작·향유되었다면, 중기 천군계 작품은 조선사회에 성리학을 보다 깊이 내재화하려는 의식에 기반을 두고 창작·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29) 위정자의 본심 회복을 고민하던 조선 유학자들은 심(心)의 주재성(主宰性)을 중시한 주자학의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주자학의 심통성정(心統性情)에 대해서는 孔泳立, 「朱子學에 있어서의 心統性情 問題」, 『東洋文化硏究』, 5집(경북대학교, 1978), 315~337쪽의 논의가 참조된다.

심(心), 경(敬) 등의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도상들을 통해 조선의 사대부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30] 퇴계(退溪), 남명(南冥) 등의 도학자들에 의해 심(心) 개념과 관련된 도상들은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퇴계의 「성학십도」에 『심경부주』에 실린 「심학도」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심경부주』에 대한 공부가 축적되면서, 심(心)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들은 점점 더 구체화될 수 있었으며, 비유를 통해 형상화된 전투와 성채, 주인공들은 점차 실체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31] 즉 추상화된 대상이 실체화되는 과정을 거쳐 조선의 사대부들은 심(心), 경(敬) 등의 추상적 개념을 희로애락을 지닌 인간으로 인지하고, 마음을 하나의 장소로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기 천군계 작품의 전개를 퇴계·율곡·남명의 문인들의 작품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퇴계(退溪 李滉, 1501~1570) 문인의 천군계 작품

조선에서 『심경부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퇴계의 『심경후론』(心經後論)이 왕명(王命)에 의해 교서관본(校書館本) 『심경부주』에 덧붙여 간행되면서부터이다.[32] 이로써 퇴계의 『심경부주』에 대한 입장은 공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퇴계는 문인들에게 『심경』, 「서명」(西銘), 「태극도설」(太極圖說) 등을 가르쳤다. 퇴계와 제자들이 나눈 편지 사이에서는 "천군은 순자가 말한 것"이라는 언급이 보인다. 퇴계의 문인 중 천군계 작품을 지은 작가로는 권호문(權好文, 1532~1587), 홍성민(洪聖民, 1536~1594), 장현광(張顯光, 1554~1637) 등이 있다.

우선 권호문을 살펴보자. 권호문은 1561년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1564년 은둔하여 평생 자연에 묻혀 살았다. 유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등과 교유하였다.

---

30) 이와 관련하여 金光淳, 「<天君傳>의 창작방법과 서술의식」, 『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새문사, 2006), 70~82쪽의 남명(南冥)의 <신명사도>(神明舍圖)가 김우옹(金宇顒)의 <천군전>(天君傳)에 끼친 영향에 대한 논의가 참조된다.

31) 許元基, 「心性圖說의 圖像學的 意味와 心性寓言小說」, 『南冥學硏究』, 20집(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233~257쪽의 <신명사도>와 심성우언소설의 관계에 대한 논의 참조.

32) 김종석, 앞의 글(1999), 6쪽.

퇴계에게 『심경』에 대해 질문하였고, 말년에 『심경』을 강학(講學)하였다. 「계약옥시」(啓鑰玉匙)[33]라는 천군계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은 부(賦)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성의관, 신명사가 등장하고 천군이 영대(靈臺)에 있다는 언급이 보인다. 또 성의관과 신명사를 응용하여 '희의로'(喜義路)·'의문'(義門) 등의 개념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홍성민은 퇴계와 화담(花潭)의 문인으로, 당시 신진사류의 지도급 인물이었다. 1591년 정철이 실각하자, 그 일단으로 몰려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특사로 복관되었다. 성혼(成渾), 이이(李珥) 등과 교유하였다. 천군계 작품으로 「천군이 지수(志帥)를 보내어 수성(愁城)을 공격하다」(天君遣志帥攻愁城)를 남겼다.[34] 이 작품은 천군이 지수(志帥)에게 보내는 조서(詔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내용상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대목은 천군이 지수(志帥)를 부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서술된다. 천군의 나라에 적들이 침입해 수성(愁城)이 세워진다. 수성을 격파하기 위해 천군은 면생(麪生: 술의 의인화)과 모생(毛生: 붓의 의인화)을 보낸다. 면생과 모생은 모두 일거에 적을 퇴치하지만 적은 재차 침입한다. 이에 천군은 지수(志帥)를 부른다. 두 번째 대목은 천군이 지수를 장군으로 봉한 뒤 지수에게 적의 성격과 격파방법 및 기졸(氣卒)을 다스리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 대목을 보자.

> 이 적들은 형체가 없으면서 형체가 있고, 자취가 없으면서 자취가 있으니, 삿된 것을 타고 일어나서 틈을 밀어젖히며 방자하게 구는도다. 불꽃 튀듯 위로 오르고, 어지럽게 섞이고 모이니, 검을 찔러도 해칠 수 없고, 화살과 돌로도 미칠 수 없도다. 장량(張良)과 진평(陳平)도 그 지혜를 쓸 수 없고, 맹분(孟賁)과 하육(夏育)도 그 용맹을 쓸 수 없으니, 반드시 등불을 기다려 밝히고 정성으로 성실하게 하여 순히 나아가 다그치지 말고, 이치로 달래고 의로 근절시

33) 權好文, 『松巖續集』 卷6.

34) 한편 이 작품은 임제의 「수성지」와 동시대에 창작되었는데, 두 작품의 창작연대의 선후는 미상이다. 술이 수성을 격파하는 모티프는 「수성지」 이전에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수성지」의 독서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작품 창작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성의 모습을 형용하는 면모인 "無形而形, 無跡而跡"대목이 「수성지」의 해당 대목과 매우 흡사하여 두 작품 간에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킨 뒤에라야 씻은 듯 사라지고 치워져 병사들이 상처입지 않고 수성(愁城)이 격파될 것이니라. 지금 그대를 상장군으로 삼고 '의'(義)를 보좌로 삼으니, '기'(氣) 병졸 약간 명을 거느려라. 짐은 문에 임해서 일을 성취할 것을 전송하노라. 그대는 가거라. 다만 기졸(氣卒)을 유념하여라. 기졸은 혈기와 함께 짝을 이뤄서 품성은 거친 것을 주로 하고 본성은 떨쳐 달리는 것을 기뻐하니 만일 혹 통제하는 데 계책을 잃는다면 장차 반드시 그들에게 부려지게 될 것이니라. 위엄과 사랑으로 이겨 모두 다스리면 공을 세울 것이니 관대하고 여유 있게 처하며 스스로 강하게 할 것을 귀하게 여겨라. 행군하는 때에 부하장수가 없으면, 일이 성취될 수 없도다. 지(智)·인(仁)·용(勇)·관(寬)·순(順)을 시중으로 가게 하여, 그대의 지휘를 듣게 하리니, 등용하는 데 시간을 끌지 말라. 지를 중군대도독으로, 인을 좌군대도독으로, 용을 전군대도독으로, 관을 우군도독으로, 순을 후군도독으로 삼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마땅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 왼쪽에서 왼쪽의 병졸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죄가 있고, 오른쪽에서 오른쪽의 병졸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죄가 있도다. 또 이 적의 환난이 문 뜰에 임박하였도다.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며, 수성(愁城)은 공허한 환상에 있으니, 함락시키고자 하나 그렇게 할 수 없도다. 저들이 비록 혹 꺾이더라도 감히 군대를 철수하지 말고 온 몸(四體)을 지켜 불시의 공격에 대비하여라. 지금 이 고요하지 않은 상태는 실로 짐에게 잘못이 있노라. 짐은 어질지 못해 허령한 마음을 오래 잃어 주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어 화를 앉아 불러 모았으니 사면(四面)에 화가 이르렀도다. 이제 감히 그대를 번거롭게 하니, 매우 부끄럽도다. 짐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짐의 말을 다 들어 한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는 데 어그러짐이 없게 하라. 장수여, 힘을 내라. 싸우지 않음으로 싸우고 치지 않음으로 치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게으름피우지 말아 그 공을 끝마쳐라. 힘써라. 장수여.[35]

35) "此賊無形而形, 無跡而跡, 乘邪乃作, 抵隙是肆, 焰焰上騰, 鬱鬱糾紛, 劍戟不能割, 矢石不能及. 良、平不能用其智, 賁、育不能容其猛, 必須燭之以明, 致之以誠, 從容不迫, 理遣而義斷, 然後雲捲席撤, 兵可不血刃而破矣. 今以爾爲天庭上將軍, 以意爲之佐, 率氣卒若干人, 臨門推轂以送, 汝其往欽哉. 第念氣卒, 與血爲配, 稟主麤厲, 性喜橫奔, 如或統制失策, 將必爲彼所駕, 威克愛克, 咸罔有功, 處之寬裕, 貴在自強. 行軍之際, 非將佐, 事不克濟, 以曰智曰仁曰勇曰寬曰順, 跟汝以往, 使之聽汝指揮, 應用無久, 以智爲中軍大都督, 仁爲左軍大都督, 勇爲前軍大都督, 寬爲右軍都督, 順爲後軍都督, 左之右之, 無不宜之, 左不攻于左, 汝有罪, 右不攻于右, 汝有罪. 且此賊患迫門庭, 乍出乍沒, 城在虛幻, 欲陷不能, 彼雖或挫, 毋敢班師, 守在四體, 以待不虞, 今玆不靖, 罪實在予. 予惟無良, 久失虛靈, 不能主不能統, 坐招叢爾, 四面而至, 玆敢煩汝, 予甚恧焉. 毋謂予無似, 聽悉予言, 毋愆于一伐二伐三伐四伐,

이 작품에 이르러 천군계 작품의 분량이 확대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천군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지수를 상장군(上將軍)으로 삼고 지(智)・인(仁)・용(勇)・관(寬)・순(順)에게 각각 벼슬을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방불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 적을 공격하는 전술 및 병졸을 다스리는 방법이 매우 핍진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대목은 홍성민의 전쟁 체험과 관련하여 고찰될 필요가 있다.

장현광은 정구(鄭逑, 1543~1620)에게 수학하였다. 정구는 퇴계의 『심경후론』을 보완한 『심경발휘』(心經發揮)를 지은 인물이다. 장현광은 일생동안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종사하였다. 그는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심설」(心說) 등의 글을 남겼고 병자호란 중에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무하옹 박인로의 <구인산 기문> 뒤에 쓰다」(書朴仁老無何翁九仞山記後)라는 천군계 작품을 지었다. 이 작품의 일부 대목을 살펴보자.

> 도를 보존하는 것은 누구인가? 삼재(三才: 天・地・人)에 참여하여 우뚝이 서고 한 대(臺)를 세워 높이 건축하니, 그 대는 바로 영대(靈臺)이고 그 주인은 바로 성성옹(惺惺翁)이다. 영대 아래에는 누각이 있으니 이른바 성의관(誠意關)인데, 성성옹이 영대에서 즉위하여 이 성의관에서 호령을 하는 바, 이것을 천군이라 한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여 온갖 몸이 명령을 따라 자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가 반드시 이 관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왕왕 해마(害馬)에게 유혹당하여 이리저리 치달리고 제멋대로 날아가서 그칠 바를 알지 못하면, 이 영대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 관문이 황폐해져서 진흙과 모래가 뒤섞인 가운데 버려두고 찾을 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36]

이 작품에는 성성옹(惺惺翁)이 등장하는데, 성성옹을 천군이라 칭하고 있다. 성성옹이 영대(靈臺)에서 즉위하여 성의관에서 다스리지만, 종종 해마(害馬)에게 유

夫子勘哉. 不兵而兵, 不伐而伐, 不替不怠, 以卒其功, 勘哉夫子"(洪聖民, 「天君遣志弭攻愁城」, 『拙翁集』 卷6).

36) "存道者誰? 參三才而特立, 建一臺而高構, 其臺則靈臺也, 其主則惺惺翁也. 臺之下有閣, 所謂誠意關也, 惺惺翁卽位於靈臺, 號令於是關, 是爲天君. 好善惡惡, 百體從令, 修己治人之道, 必自是關而始焉. 然而往往爲害馬所誘, 馳騖飛揚, 不知所止, 則茅塞乎此臺, 蓁蕪乎是關, 置於泥沙混蕩之中, 而不知求焉者多矣"(張顯光, 「書朴仁老無何翁九仞山記後」, 『旅軒續集』 卷4).

혹당하여 영대를 황폐하게 할 때가 많다고 한다. 전술한 「천군이 지수를 보내어 수성을 공격하다」와 차별되는 면으로 영대와 성의관의 이미지를 보다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영대 아래 누각이 있고 그 누각에 성성옹이 즉위한다고 하여 도상(圖像)을 그리듯 기술하고 있다.

3. 율곡(栗谷 李珥, 1536~1584) 문인의 천군계 작품

퇴계 심성론은 그의 『심경후론』이 교서관본으로 간행됨에 따라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 심성론에 대한 이론(異論)도 그치지 않고 제기되면서 『심경부주』는 조선 유학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율곡의 학통을 이은 기호학파(畿湖學派)에서도 『심경부주』에 대한 주석서가 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심경석의』(心經釋義)를 들 수 있다.

율곡의 학통을 이은 문인 중 천군계 작품을 지은 인물로는, 윤광계(尹光啓, 1559~1619),[37] 정홍명(鄭弘溟, 1582~1650), 장유(張維, 1587~163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신명사기」(神明舍記)를 남기고 있다. 이 중 정홍명과 장유의 작품을 살펴보자.

정홍명은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문인으로 율곡의 학통을 이었다. 병자호란 중 소모사(召募使)로 활약하였고, 호란이 끝나자 벼슬을 사양하고 경전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썼다. 과작(課作)으로 「신명사기」를 지었다. 「신명사기」는 신명사의 주인옹과 손님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님은 주인옹에게 부귀와 여색이 없는 신명사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주인옹은 손님에게 자신 역시 한때 이목(耳目)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 이어 주인옹은 그 실상은 적에게 곤경을 당하는 것이었고, 신명사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대답한다.

장유 역시 김장생의 문인이다. 일찍 양명학에 접하여 당시 주자학의 편협한 학문풍토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식(李植)은 장유의 학설이 주자와 배치되는 것이 많다고 하여 장유를 육왕학파(陸王學派)로 지적하였으나, 송시열은 그가 의리에 있어 정자(程

37) 윤광계는 조헌(趙憲, 1544~1592)의 문인으로, 「중수신명사기」(重修神明舍記)를 지었다. 이 작품은 마음이 미혹되었다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子)와 주자를 종주(宗主)로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장유의 「신명사기」의 한 대목을 보자.

> 신명씨가 성덕(盛德) 대업(大業)의 소유자라고는 해도 성격이 꽤나 괄괄하고 방자한 편이라서 드나들기를 좋아하며 행동거지에 일정한 법도가 없게 된 나머지 혹 육합(六合: 上下와 四方) 밖으로 나가 노닐기도 하고 지저분한 물건 속으로 뒤섞여 들어가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곧잘 한다오. 그런가 하면 요원(燎原)의 불길에 데어 문드러지기도 하고 넘실대는 큰물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면서 숲이나 하천은 말할 것도 없고 솟을대문이 우뚝 서 있거나 높다랗게 주렴(珠簾)이 걸린 곳이면 빠짐없이 기웃거리곤 하는데, 이따금씩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지요.
> 그래서 이 집 역시 오래도록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 큰 화재가 일어나 불타기도 하고 홍수에 떠내려가기도 하는 가운데 가시덤불에 뒤덮여 황폐해진 채 먼지만 자욱이 쌓여 있다가 신명씨가 돌아오고 나면 그때 가서야 문득 다시금 수리하곤 하였는데, 대개 몇 번이나 폐허가 되었다가 복구되었는지 모를 정도라오. 그러다가 이윽고 상제께서 이 소문을 듣고 좋아하지 않으시니, 신명씨가 두려워하며 마침내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되면서 집 또한 처음과 같이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38]

이 작품에서는 천유자(天遊子)와 주인옹(主人翁)이 등장한다. 천유자가 어떤 집을 보고 주인옹에게 누구의 집이냐고 묻자, 주인옹이 신명씨가 다스리는 집이라고 하면서 신명사의 역사를 말해준다. 신명씨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의 행동이 핍진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예성이 높다.

4. 남명(南冥 曺植, 1501~1572) 문인의 천군계 작품

남명은 「신명사도」(神明舍圖)와 「신명사명」(神明舍銘)을 남겼고, 김우옹(金宇顒, 1540~1603)에게 「천군전」(天君傳)을 짓게 하였다.[39] 남명은 마음을 각성하는

38) "神明氏雖有盛德大業, 然性頗憤騖, 喜出入, 動止無常, 或游於六合之外, 溷於垢穢之中. 或焦爛於燎原之焰, 或墊溺於滔天之浸, 山林皐壤, 高門懸薄, 無所不至, 往往迷而不返. 故是舍也久廢無主, 或爲大火所焚, 大水所漂, 荊棘蕪穢, 塵埃坌積, 及神明氏旣歸, 輒復修治, 蓋屢廢而屢治. 旣而上帝聞而不悅, 神明氏懼焉, 遂不復出, 而舍亦完復如初"(張維, 「神明舍記」, 『谿谷集』 卷8).

‘경’(敬)의 수양론과 마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추구하는 ‘의’(義)의 의리론을 학문의 핵심과제로 삼았다.[40] 남명의 학통을 이은 문인 중 천군계 작품을 지은 인물은 김우옹과 하진(河溍, 1597~1658) 등이 있다.

김우옹은 병조참판을 역임했으며 유배경험이 있다. 그는 1566년 「천군전」을 창작했다.[41] 다음을 보자.

> 천군이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자 국가의 남아 있던 신하 중에 천군을 따르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공자 양(良)만이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는 비록 관직을 제수 받은 일이 없었으나 차마 천군을 버리고 떠날 수 없어 부르기를 바라는 시를 지어 천군을 깨우쳤다. 비로소 천군은 슬퍼하며 깨달아 바로 수레를 정비하여 고삐를 돌리도록 명하고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이에 태재 경(敬)이 임금이 거한 곳으로 나아가 그 지위를 되찾게 하였다.[42]

김우옹은 「천군전」에서 남명의 「신명사도」의 등장인물과 창작원리 등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론과 나라를 다스리는 경세론이 동일한 구조임을 드러내, 수양론·의리론·경세론이 일관하는 도학체계를 나타내었다.[43] 「천군전」은 천군의 일생이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서사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진은 남명의 문인인 성여신(成汝信, 1546~1632)의 문하에 있었다. 그는 병자호란에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1633년 「신명사기」를 지었다. 다음은 「신명사기」의 일부이다.

> 흉현(胸縣, 마음 고을)의 인의향(仁義鄕)에는 옛 성현이 많이 나왔다. 태초 원년(元年) 섭제(攝提) 때 무극옹(無極翁)이 와서 집을 짓는데, 인산(仁山)의 서

39) 金光淳, 앞의 책(2006), 70~71쪽; 許元基, 앞의 논문, 233~254쪽.

40) 남명의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에 대해서는 崔錫起, 「南冥의 <神明舍圖>·<神明舍銘>에 대하여」, 『南冥學硏究』, 4집(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4); 金忠烈, 「<神明舍圖·銘>의 새로운 考釋」, 『南冥學硏究論叢』, 11집(남명학연구원, 2002)이 참조된다.

41) 金光淳, 앞의 책(1980), 41~54, 105쪽.

42) “天君旣失國, 故家遺臣無一從者, 惟公子良尙周旋其間, 雖不見庸, 不忍棄去, 乃作祈招之詩, 以警其君. 君惻然省悟, 卽命整駕回轡, 收召散卒, 太宰敬詣行在, 使復其位”(金宇顒, 「天君傳」, 『東岡集』 卷6).

43) 金光淳, 앞의 책(2006), 71~82쪽; 금장태, 「남명의 心개념과 <神明舍圖>의 구조」, 앞의 책(2002), 111쪽.

> 쪽, 지수(智水)의 동쪽에 점을 쳐서 신토(信土)를 쌓고 인목(仁木)을 모으고, 의금(義金)을 주조하여, 몇 길[仞]의 담을 쌓아 집 한 채를 이루고 편액을 '신명사'(神明舍)로 하여 달았다. 집의 규모는 탁 트여 넓고 사방의 창은 통하며 평정하고 시원스러워 조금도 굽고 삿된 것이 없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왼쪽으로는 본보기가 되고 오른쪽으로는 법도에 맞는다는 것이었다.44)

예문에서는 신명사의 구조가 서술되고 그 경관이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명의 「신명사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명사의 모습을 시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문인에 의해 「신명사기」가 동일한 제목으로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가에 따라 형식상 문대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서술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며, 내용상에 있어서도 신명사의 주인의 행적에 주목하는가 하면, 신명사의 구조와 그 경관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까지 중기 천군계 작품을 퇴계, 율곡, 남명 문인의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기 천군계 작품을 쓴 작가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부분 전쟁경험이 있어서 의병장이거나 종전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세대들로 불가피하게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대부분 은자의 길을 택하여 지방에서 유학을 진흥시켰으며, 심성론에 관심을 기울인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심성론에 대한 저술 및 작품을 남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중 많은 수가 사화에 휩쓸려 유배 경험을 겪었다.45) 이러한 공통점이 이들이 천군계 작품을 창작하는데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된다. 이들은 주로 심성론 연구의 일환으로 천군계 작품을 창작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홍성민과 장유처럼 문예적으로 성취가 높은 작품을 창작하거나 김우옹처럼 서사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다.46)

---

44) "胸縣, 仁義鄕也, 古之賢聖人, 多出焉. 太初元年攝提歲, 無極翁來相宅, 乃卜仁山西、智水東, 築信土、鳩仁木、鑄義金, 周以數仞之墻, 搆一宇成, 扁其額曰神明舍. 規模闊達, 八窓洞然, 平正灑落, 少無邪曲, 眞所謂'左準繩右規矩'者也"(河澹, 「神明舍記」, 『台溪集』 卷之六).

45) 金光淳, 앞의 책, 24쪽의 천군소설의 작가 대부분이 은거와 유배 체험이 있다는 논의가 참조된다.

46) 한편, 중기 천군계 작품의 작가 중 예외적인 인물로 김안로(金安老, 1481~1537)를 들 수 있다. 김안로는 권신(權臣)으로 수차례 옥사를 일으킨 인물이다. 「성의관기」(誠意關記)라는 작품을 남겼다. 「성의관기」는 천군이 성의관에 머물다가 이욕(利慾)에게 곤란을 겪어 지수(志帥)와 기졸(氣卒)의 도움으로 이를 물리치고, 연호를 복초원년(復初元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Ⅳ. 후기 천군계 작품: 17세기 중반~19세기

후기 천군계 작품에는 천군소설이 등장하고 있다. 후기 천군계 작품으로는, 황중윤(黃中允, 1577~1648)의 「천군기」(天君紀), 정태제(鄭泰齊, 1612~1669)의 「천군연의」(天君演義), 임영(林泳, 1649~1696)의 「의승기」(義勝記), 정기화(鄭琦和, 1786~1840)의 「천군본기」(天君本紀), 유치구(柳致球, 1793~1854)의 「천군실록」(天君實錄) 등이 있다.[47] 후기 천군계 작품의 특징으로는 우선 서사적 편폭이 대폭 확대된 점을 들 수 있다. 또 초·중기 천군계 작품의 경우 작가 자신이 스스로 서문을 쓴 경우가 드문 데 비해, 후기 천군계 작품에는 작가 스스로 작품에 서문을 남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서문이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그 창작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황중윤은 박성(朴惺, 1549~1606)과 정구(鄭逑)에게 수학하였던 바, 퇴계의 학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성은 황중윤의 장인으로, 김우옹·장현광·권호문과 교유하며 학문을 연마하였고,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켜 장정을 동원하고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등 공적이 많았다. 조정에서 박성에게 여러 번 벼슬을 내렸지만,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황중윤의 장인이자 스승인 박성이 중기 천군계 작품을 쓴 문인들과 교유하였기 때문에, 황중윤 역시 중기 천군계 작품의 독서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그는 32세 때 장현광과 만나 수일간 토론하였다. 또 황중윤은 광해군 시기 외교 사절로 명(明)에 다녀왔다. 1620년 겨울 청(淸)이 선천(宣川)에 침입하자, 그는 겉으로 유화정책(宥和政策)을 쓰면서 안으로 수비를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조정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조반정 후 청과의 화의를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10년 동안 해남에 유배되었다.[48]

황중윤은 유배기간 동안 「천군기」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천군기」는 현재 세 가지 이본이 남아있는데, 미완성 초고본과, 교정·교감이 가해진 초고본, 완성본(逸史本 천군기)이다.[49] 「천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남아있다.

이 작품에서는 심성론에 관한 문제의식이 보이기보다는, 『심경부주』의 개념과 모티프를 이용하여 문예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난다.

47) 金光淳, 앞의 책(1980), 11쪽 참조.

48) 金東協, 「黃中允小說硏究」, 경북대학교 박사논문(1990), 10~18쪽 참조.

49) 위의 논문, 20~24쪽.

> 내가 어릴 적 독서에 뜻을 두었으나, 들어가는 입구를 알지 못했다. 한강(寒岡)과 대암(大庵) 두 선생의 문하에서 배운 뒤로 비록 입구가 있는 것을 알았으나, 재질이 노둔하여 취하고 꿈꾸는 지경을 면치 못했다. 또 과거문장에 얽매어 과거시험장의 길에서 골몰하여 분주했던 세월이 거의 십년이고, 이어 명리(名利)에 속박되어 묘시(卯時)에 출근하여 신시(申時)에 퇴근하며 세상일 가운데서 부림 받은 세월이 또 거의 십년이다. 창을 접하여 벗과 술 마시며 아침과 낮에 속박되어 마침내 몸이 달리고 시체가 가는 지경에 이른 지가 이제 육십년이다. 아아! 처음에 입구를 알지 못했으면 그만이거니와 이미 입구가 있음을 알고도 도리어 들어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뒤로 달리고 반대로 가서 삿된 갈림길과 굽은 길 사이에서 낭패를 당하였다. 그 입구에 있어서는 북쪽에 있는 연나라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수레를 몰아간 셈이니, 이른바 처음에 잘못하면 천리나 멀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포기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건만 개연히 후회해본다. 날은 저물었는데 길은 머니, 고개를 돌려본들 어찌 하겠는가. 기왕의 큰 잘못을 징계하고 장래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애통해하여 종전의 미혹하고 잘못한 것을 이 작품의 우언 중에 갖추어 기술한 것이 이와 같다. 끝내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감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스스로 경계하고 힘써서 옛날 입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할 따름이다.[50]

서문에서 본심을 잃고 미혹되었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본심을 찾으려 하는 작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황중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외물로 인해 마음을 잃는 일'을 절실히 경험했으며, 이에 본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과 소회 및 삶의 체험을 「천군기」라는 작품에 결집(結集)하였다. 「천군기」는 연의소설의 형식과 전기소설(傳奇小說)의 문법을 차용하였으며 군담(軍談)의 성격을 띤 대목이 나타난다. 천군계 작품 중 최초의 천군소설로써 후대 천군소설의 전범이 되었다.

정태제는 1635년 병과로 급제한 후 정언·사간·승지 등을 역임했다. 모반사건

50) "余少志於讀書而不知門戶, 自摳衣於寒岡, 大庵兩先生之門, 雖知有門戶, 而質鈍才魯, 未免醉夢. 且爲科臼時文所累, 汨沒奔走於槐黃之路者, 殆十年; 繼而名繮塵勒縛束, 卯申役役風埃中者, 又殆十年. 本以觸窓酒朋, 重被朝晝桎梏, 遂至於肉走屍行者, 今六十年. 噫! 初不知門戶則已, 旣知有門戶而反不知所入. 背馳叛去而狼狽於邪岐曲徑之間, 其於門戶不啻北燕而南轅, 所謂謬以千里者此也. 暴棄旣久, 慨然追悔, 而日暮途遠, 回首柰何. 懲旣往之大失, 痛將來之莫及, 而備述其從前迷誤於此編寓言之中如此, 而其所以終能恢復云者, 未敢自謂能然也. 盖欲其從此自警自勉, 而不遠於舊門戶云爾"(黃中允, 「天君紀敍」, 逸史本『天君紀』, 위의 논문, 20~21쪽 재인용).

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1664년 「천군연의」 서문을 지었다.[51] 그 서문에서 「천군연의」의 문체는 연의체이지만 그 내용은 유가의 공부이니, 이 작품은 당대 유행하는 패관소설보다 가치가 월등하다고 하였다. 「천군연의」는 황중윤의 「천군기」와 내용상·형식상으로 상당부분 일치하여, 「천군기」를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화는 남인 계열의 학자로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삼사의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하였다. 붕당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시문창작과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천군본기」의 내용은 천군(天君)이 즉위한 해부터 30년까지의 일을 기술하고 각 연대의 사건에 사신(史臣)의 논단(論斷)을 붙인 것으로, 사람이 태어난 해로부터 30세까지의 심성(心性)의 변화과정을 우의(寓意)하고 있다.[52] 「천군본기」의 서문(序文)과 총론(總論)의 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 ① 심학(心學)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 주돈이, 정호, 정이 등의 중국의 여러 현인들로부터 우리나라의 이름난 석학에 이르기까지 혹 주해도 하고 혹 도설(圖說)도 하여 말이 잘 갖추어졌고, 논변이 이미 자세하게 되었다. 보잘 것 없는 소견으로써 비록 그 전철을 밟아 본떠 모방하더라도 오히려 만분의 일도 통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감히 문호를 별도로 열어 옛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원리를 어찌 찾아낼 수 있으랴!…그러나 부끄러워서 혀를 묶어버린다면, 이는 스스로 한계를 짓고 중단하는 것이다. 한계를 짓고 중단하는 것은 성인이 싫어하는 바인데, 내가 어찌 스스로 기운을 꺾고 포기하겠으며, 천 번 생각해서 한 번 이루는 걸 시도해보지 않겠는가![53]

> ② 물(物)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은 경전의 요체이고, 사람으로 가정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패설의 비결이다. 장차 경전의 깊은 뜻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패설의 관습을 사용하여 말을 붙이고 사연을 서술하는 일은 모순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기 쉽게 하는 데에는 비유만 한 게 없고, 사람으로 하여금 꼭 믿게 하는 데에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 한 것이 없다.[54]

---

51) 金光淳, 앞의 책(1980), 64~74, 129~142쪽 참조.

52) 위의 책, 85~89, 155~170쪽 참조.

53) "心學之於人, 大矣. 自濂洛諸賢, 以至我朝名碩, 或爲註解, 或爲圖說, 言之極備, 辨之已詳, 以余謏寡之見, 雖使循塗守轍, 依樣畵葫, 尙不能透其萬一, 況可以別拓門戶, 發前人所未發之旨哉!…遂囚其舌則是畵也. 畵, 聖人之所斥也, 余何必自沮自棄, 不試千慮之一得耶?"(鄭琦和, 「天君本紀序」, 규장각본 『天君本紀』).

예문 ①의 「천군본기」 서문에서 작가가 심성론의 전통 아래 이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점과, 심성론의 원리를 본기의 형식으로 자신이 처음 형상화한 것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문 ②는 「천군본기」 총론으로 작가가 작품의 형상화방식과 구성방식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가 공부와 패설의 관습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둘의 결합은 사람들이 경전의 깊은 뜻을 깨닫고 믿게 하는데 최적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55] 「천군본기」는 방대한 전거(典據)가 나열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작품 속에 조선의 사대부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한 심성론의 교양지식이 다채롭게 구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독자층은 이 작품을 읽으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시기별로 천군계 작품을 살펴보았다. 초기 천군계 작품은 불교와 도교를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배척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기 천군계 작품에서는 등장인물 및 배경을 나타내는 개념이 응용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양한 문체가 시도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문예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후기 천군계 작품은 소설의 형식과 결합되며 서사적 편폭이 확대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사성이 대폭 강화되고 흥미 요소가 배가되는 경향이 있다.

천군계 작품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심성론의 일환으로서 작품을 창작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초기 천군계 작품의 작가들은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려는 의식을, 중기 천군계 작품의 작가들은 조선사회에 성리학을 보다 깊이 내재화하려는 의식을, 후기 천군계 작품의 작가들은 흥미 요소를 추가하여 교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후대로 갈수록 전대에 창작된 천군계 작품과 차별되는 형식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는 창작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군계 작품을 당대 문인들은 어떤 태도로 향유하였을까? 이에 대해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기록이 남아있어 살펴봄직하다.

---

54) "取物引喩, 經傳之眼藏, 借人立名, 稗詭之心訣. 將透經傳之奧指, 而先用稗詭之餘習則其遣辭下語, 能不矛盾矣乎! 然欲人易曉, 莫如引喩, 欲人必信, 莫如立名"(鄭琦和, 「天君本紀 總論」, 규장각본 『天君本紀』).

55) 이와 관련하여 천군소설이 소설을 배격하는 유학자들과 소설 작가군 간에 매개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논의가 金光淳, 앞의 책, 195~200쪽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조선 유학자의 소설관이 변모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金光淳, 「조선 유학자의 소설관의 변모 양상」, 『한국고전문학사의 쟁점』(새문사, 2004), 51~71쪽이 참조된다.

> 『심학도원류』(心學圖源流)는 조례(條例)가 정연하니 또한 영원히 전할 전법(典法)이 될 만한데, 부록한 신명사도(神明舍圖)·천군전(天君傳)·신명사기(神明舍記) 등 모든 저작들은 선현(先賢)들이 학문을 함에 있어 극도로 연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는 일단은 볼 수 있으나 그것은 희롱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본의는 필시 이와 같지 않을 것이나, 저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비록 편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천군(天君)·영대(靈臺)·단전(丹田)·주인옹(主人翁)과 같은 것은 그 중 어느 하나만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회(傅會)해서 문자를 만든다면 과거(科擧)의 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56]

이덕무는 천군계 작품에 대해 심성론의 일환임을 인정하면서도 희롱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천군과 관련된 개념을 부회하여 문자를 만드는 것이 과거의 글과 다름없다는 말에서 천군계 작품이 문예성이 짙은 글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천군계 작품의 독자층은 천군계 작품을 창작의도의 차원에서는 심성론 연구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문예적인 글로 인식하며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57] 이러한 향유태도는 천군계 작품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천군계 작품의 작가들은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와 무겁고 심각한 심성론을 흥미로운 문예물에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의인화한 서사문학을 창안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심경부주』와 천군계 작품 사이의 관계 및 14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천군계 작품을 고찰하였다. 고찰의 결과 천군계 작품은, 여말 신진사대

---

56) "『心學圖源流』, 條例井井一, 亦爲不刊之典. 而附錄「神明舍圖」、「天君傳」、「神明舍記」等諸作, 縱可見先賢爲學無所不用其極之一端, 而不其近於戱嬉乎? 本意未必如是, 而以愚意觀之, 雖不編入, 未爲不可. 若天君靈坮丹田主人翁者, 單擧而言則可也. 至於傅會而爲文字, 則何異科擧之文哉?"(李德懋, 「趙敬菴」, 「雅亭遺稿」11 書5, 『靑莊館全書』 卷19).

57) 金光淳, 앞의 책(1980), 199~200쪽 참조.

부로부터 조선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목한 심성론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그 자장 아래서 창작·향유되었음이 밝혀졌다.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의 심(心) 개념을 가지고 도교와 불교를 배척하였고, 천군계 작품은 이러한 사대부들의 문제의식에서 산생되었다. 왕조교체 이후 조선왕조는 고려 왕조의 불교적 신앙과 문화기반을 유교이념의 사회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신진사대부들은 유불의 핵심개념인 심(心)에 대해 주목하였고, 그 과정에서 초기 천군계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더욱이 15세기 초반에 이르러 마음의 주체적 측면을 강조한 『심경부주』와 사대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거듭되는 사화(士禍)로 인해 사대부들은 심성론 연구에 보다 경도되었다. 조선 사대부들은 『심경부주』를 경전에 버금갈 정도로 중시했으며, 『심경부주』의 무수한 논란처와 난해처로 인해 수많은 주석서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심성론의 기본 개념과 원리는 당대 사대부들의 필수교양이 되었다. 『심경부주』에는 심(心)과 관련된 무수한 개념과 비유, 도상(圖像)이 들어 있었고, 사대부들을 심성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과 원리를 실체화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 천군계 작품은 심성론 연구의 일환으로 활발히 창작되었다. 이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직접 전쟁을 체험했던 문인들에 의해 후기 천군계 작품에 군담적(軍談的) 요소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는 작품의 서사화에 기여하며 흥미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후기 천군계 작품은 연의소설 및 전기소설의 장르관습을 차용하여 문예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다.

천군계 작품은 심성론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반성의 구조를 지닐 수 있었다. 이는 고소설에 등장하던 평면적 인물 및 권선징악과 차별되는 입체적 인물과 회귀구조(回歸構造)가 소설에 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천군계 작품은 한국소설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文)·사(史)·철(哲)이 긴밀하게 결합된 글쓰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천군계 작품은 한국문학사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이러한 천군계 작품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창작된 또 하나의 작품군이 있다. 그것은 유토피아를 형상화한 작품(이하 유토피아 계열의 작품으로 칭한다)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심성론에 몰두하는 동시에 도가 상실된 시대에 태어나 자신들의 이상을 펼칠 수 없음을 슬퍼하면서, 현실

을 도피하고 술과 잠을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을 형상화한 문학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후자의 구체적 작품으로는 「취향기」(醉鄕記)·「수향기」(睡鄕記) 등이 있으며, 임제(林悌)의 「수성지」(愁城誌) 역시 이 계열의 작품에 속한다.

유토피아 계열의 작품은 술이나 잠을 통해 근심을 제거하는 주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군계 작품의 창작의식에서 서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동일한 기반을 토대로 삼고 있다. 천군계 작품을 지은 남효온과 장현광은 「수향기」, 「취향기」 또한 창작하고 있다. 또 유토피아 계열의 작품에서는 술과 관련된 전고를 나열하여 취향의 치란(治亂)을 서술하는, 역사서술의 방식이 차용된 작품도 있고, 상제가 술에게 명령을 내려 근심을 혁파하는 구조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천군계 작품과 동일한 서술방식과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취향·수향이라는 허구적 공간을 실제의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은, 성의관·신명사를 실체화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천군기」에는 「수성지」의 영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 두 계열 작품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조선 사대부들은 희작을 배격하였으나, 위 두 부류의 작품군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며 즐겨 창작하고 향유하였다. 전자는 사대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위정자의 본심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일환이었고, 후자는 당대사회에 대한 울분을 잠시나마 망각할 수 있는 도피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두 부류의 작품들에서는, 뜻과 맞지 않는 세상에서 은둔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사대부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고민을 진솔하게 표출해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程敏政(편), 『心經附註』. 규장각 소장본.
金宇顒, 『東岡集』. 龍岡書院 중간본.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본.

張維,『谿谷集』. 한국문집총간본.
張顯光,『旅軒續集』. 한국문집총간본.
鄭道傳,『三峯集』. 한국문집총간본.
朴世采,『南溪集』. 한국문집총간본.
河溍,『台溪集』. 한국문집총간본.
洪聖民,『拙翁集』. 한국문집총간본.

孔泳立,「朱子學에 있어서 心統性情 問題」.『東洋文化硏究』5집, 경북대학교, 1978.12, 315~337쪽.
금장태,『한국유학의 心說』.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金光淳,『天君小說硏究』. 서울: 螢雪出版社, 1980.
金光淳,「조선조 유학자의 소설관의 변모양상」.『한국고전문학사의 쟁점』. 서울: 새문사, 2004, 51~71쪽.
金光淳,「<天君傳>의 창작방법과 서술의식」.『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서울: 새문사, 2006, 70~94쪽.
金東協,「黃中允小說硏究」.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0.
김종석,「『심경강해』를 읽기 전에」.『심경강해』. 대구: 이문출판사, 1999.
金忠烈,「<神明舍圖·銘>의 새로운 考釋」.『南冥學硏究論叢』11집, 남명학연구원, 2002, 1~41쪽.
崔錫起,「南冥의 <神明舍圖>·<神明舍銘>에 대하여」.『南冥學硏究』4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4, 155~193쪽.
許元基,「心性圖說의 圖像學的 意味와 心性寓言小說」.『南冥學硏究』20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233~257쪽.

국 문 요 약

천군계 작품(天君系 作品)은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로부터 조선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목했던 심성론(心性論)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그 자장 아래 창작·향유되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의 심(心)개념에 천착하여 도교·불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도교와 불교를 배척하고자 하였다. 천군계 작품은 신진사대부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산생되었다. 곧이어 신진사대부들은 왕조교체의 주역이 되었고, 혁명을 거쳐 세워진 조선왕조는 고려 왕조의 불교적 신앙과 문화기반을 유교이념의 사회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부터 주목한 유불의 핵심개념인 심(心)에 대해 주목하였고, 천군계 작품은 이들의 심(心)에 대한 관심과 결부되어 창작·향유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4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사대부들은 심성론 연구에 보다 경도되었으며, 15세기 초반에 이르러 마음의 주체적 측면을 강조한 『심경부주』(心經附註)와 사대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심경부주』에는 심(心)과 관련된 무수한 개념과 비유, 도상(圖像)이 들어 있었고, 사대부들을 심성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과 원리를 실체화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군계 작품은 활발히 창작되어 심성론 연구의 일환이 되는 한편, 점차 흥미 있는 교양물로서 읽혀지게 되었다.

초기 천군계 작품은 불교와 도교를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배척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기 천군계 작품에서는 등장인물 및 배경을 나타내는 개념이 응용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양한 문체가 시도되는 등 문예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후기 천군계 작품은 소설의 형식과 결합되어 서사성이 대폭 강화되고 흥미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특징을 지닌다.

◉ **투고일** : 2008. 1. 14. ◉ **심사완료일** : 2008. 2. 28.
◉ **주제어**(keyword) : **천군**(ch'ŏnkun), **심경**(Shimgyŏng), **심경부주**(Shimgyŏngbuju), **심성론**(shimsŏngron), **마음**(mind).